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 호로고루 사적지에서

장석주
시인

새해 들어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늙는다는 실감이 또렷해진다. 눈이 침침하고 근력은 떨어졌다. 명민함과 정기도 사라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듦의 기색이 완연한 내 모습에 놀란다. 늙는 건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노년의 실감이 늘 생경하고 쓸쓸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듦과 죽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맞게 되는 실존 사건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 국영방송 채널을 틀어 놓은 채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삶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죽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전두엽에 번개처럼 꽂혔다. 나는 죽음을 걱정했던가? 그건 우주의 섭리이고, 풀어야 할 실존의 수수께끼일 뿐인 것을.

북극의 한랭전선이 남진하며 매운 추위가 몰려왔다. 한강이 얼음으로 덮이고, 중부 내륙도 얼었다. 오후에 집을 나서 호로고루(瓠蘆古壘) 사적지를 찾았다. 집에서 멀지 않아 답답할 때면 찾는 곳이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비강(鼻腔)으로 밀려든 찬 기운이 식초인 듯 따가웠다. 평지로 내려서니, 언 강과 응달 쪽 잔설, 쨍하니 파란 하늘, 임진강 너머에서 남쪽을 향해 나는 쇠기러기 떼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지역에서 쇠기러기나 두루미 같은 겨울 철새가 자주 목격되는 것은 철새들 먹잇감이 흔한 들녘과 장항 습지, 임진강이 한데 몰려 있는 탓이리라.

호로고루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의 임진강변 현무암 절벽 위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 사적지다. 호로고루는 임진강의 옛 이름 '호로하'(瓠蘆河)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일대는 기원 6세기 중엽 이후 2백여 년간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삼촌·아들이던 이들이 고향에 부모 형제 처자식을 두고 떠나와 낯선 땅에서 무장한 채 국경을 지키느라 낮과 밤을 흘려보냈으리라. 스무 해 전쯤 유적 발굴 조사로 땅속에 묻혀 있던 삼국 시대의 성벽과 우물이 나오고 다수의 연화문 와당이나 토기, 철기 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지금은 평평한 구릉에 고구려 점령기에 쌓은 성벽과 성곽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강변 갈대숲에서 날지 못하는 쇠기러기를 만났다. 깃털은 윤기를 잃고, 사체는 얼어서 딱딱했다. 함부로 방치된 조류 사체는 죽음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해 준다. 천지간에 나고 죽는 건 사람이나 조류나 마찬가지다. 1500년 전 번성하던 고대 국가의 흔적을 밟고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묻는 일은 범상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벽을 쌓고 전쟁을 치른 이들은 무명의 병사들이다. 더러는 전쟁 중 팔다리를 잃은 채 귀향하고, 더러는 차디찬 주검이 되어 낯선 땅에 묻혔으리라.

공자는 물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흘러감이 마치 이 물과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시간은 저 아득한 근원에서 흘러와서 현재에 닿건만, 현재는 유동하는 가운데 또 다른 현재에 닿는다. 인간은 그 유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멸의 연쇄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다. 하지만 내 생명은 나만의 것인가? 생명은 부모에게 받은 것, 내 의지로 살아 낸 것,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세 겹인 것을 굳이 내 것으로 한정할 때 생명이 품은 뜻은 협소해진다. 사람도 새도 다음 세대에 자리를 내어 주고 떠나간다. 오래된 경전이 말하듯이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젊을 땐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세월을 헛되이 썼다. 괴로워 술을 마시고 방황하던 젊은 날의 내 어리석은 선택과 행위들이 뼈에 사무친다. 결핍에 허덕이느라 현재에 더 충실하지 못하기도 했다. 너무 젊었던 탓이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한 줌 지혜도 품지 못한 채 늙고 죽음을 맞는다는 생각에 더욱 쓸쓸해진다. 나이 들어 대리석을 깎아 새 집 지을 욕망 따위는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무덤을 생각하며 비감에 젖는 자에게 한 줌의 지혜가 있으리라. 이제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걱정거리는 내려놓자고 다짐한다. 오늘은 호로고루 사적지를 다녀왔고, 날 풀리면 다음엔 속초 겨울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

종교칼럼

# '부르심'과 '응답'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사회복지회 부국장

가톨릭교회에서 사제나 수도자로 살아가려는 이들은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 중에 '부르심'을 받아 진실하게 응답하여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부르심'은 성소(聖召: 거룩한 소명)라고도 하며, 성소를 받은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겠다고 응답한 이들을 하느님의 사람, 봉헌된 사람이라고 한다. 봉헌된 사람! 하느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고 봉헌된 사람이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다. 이때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시 예수를 따라나선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이 항상 수반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나섰다"라는 말씀이 부르심과 응답 후에 일어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결국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부르심'에 '응답'으로 선택했으니 하느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것들은 당연히 버리는 것이다.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쇄신한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긴다는 것이다.

'부르심'과 '응답'의 과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삶이 비단 가톨릭 신앙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타 종교의 성직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 서로를 부르고 찾게 되고 그에 응답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집중하여 소중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랑과 헌신, 이해와 배려, 존중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선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직자로 살아가기 위한 '부르심'과 '응답'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인간관계 안에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 순수함과 정직함과 정의로움이 소중한 가치로 자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 종교 사이도 마찬가지다.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과 공격은 자신들 스스로가 신앙인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기 종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잘못됐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각 종교들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를 단절시킨다면 과연 그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는 봉헌된 사람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거나, 천박한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들은 자기 종교의 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세상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말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스스로의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을 단절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며 배타적인 시선을 만들어 낸다면, 그 거룩함은 거짓된 거룩함이고 세상을 더럽힐 뿐이다.

기 고

#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는 '읽기'

이강선
호남대 교양학부 교수

일출 사진을 찍었다. 동지에는 하지와 해가 뜨는 장소가 다르다. 같은 장소에서 하지와 동지에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해 뜨는 위치의 차이가 선명하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파노라마 기능이다. 주로 180도 전망을 활용하는데, 기준점의 양편으로 각기 다른 풍경이 찍혀 시야가 한결 넓어진다. 파노라마 기능 대신 상하로 움직이는 스크롤 기능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장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파노라마는 말 그대로 전경이다. 정면뿐 아니라 옆면 및 후면까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한다. 스크롤은 아래위로 펼쳐진다. 어느 한정된 면을 잘라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파노라마와 스크롤은 책 읽기와 인터넷 읽기를 연상시킨다. 책은 옆으로 시선이 흐른다. 한 쪽을 읽고 다음 쪽으로 올라가 다시 시작한 다음, 한 장을 넘긴다. 읽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맥락을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 독서는 밑으로 시선이 내려간다. 좀 더 깊이, 좀 더 상세히 읽도록 만든다.

각각의 읽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책 읽기는 인터넷 읽기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책장을 넘겨야 하고 아래로 갔던 시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인터넷 읽기는 속도가 빠르다. 아래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인터넷 읽기는 훑어보면서 건너뛰게 된다. 자신에게 흥미로운 점, 혹은 같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면만 찾아 읽는다. 책 읽기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디지털은 유독 그런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인터넷의 면모와 무관하지 않다.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널려 있고 한편으로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쉽다. 인터넷은 클릭 한 번으로 다른 내용,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클릭 한 번으로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다. 구입을 해야 하고 전체를 읽어야 총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책과 선명하게 다르다. 이처럼 편리하고 많은 정보가 널려 있으니 더 나은 정보, 혹은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 건너뛰면서 읽거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수한 클릭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서 저 사이트로 넘어가는 동안 왜 접속했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리기 일쑤다. 필요해서 다운로드 받은 정보들을 저장했다는 사실조차 잊는다. 한편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혼자만 세상에서 소외되고 뒤떨어지는 듯한 '접속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편리한 접속은 불안을 심화한다. 화장실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스마트 폰을 들고 뉴스를 읽거나 정보를 읽거나 카카오 톡을 읽거나 금방 찍은 사진을 올린다. 뉴스에서, 각종 SNS에서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고 답을 쓴다.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사실은 같은 편을 찾는다. 지식을 넓히려고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한다.

인터넷의 소용은 소통과 지식이다. 소통과 지식이 왜 필요한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인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인가. 둘 다 옳다.

그러나 나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앎이 많은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 자신의 앎만을 주장한다면 그 앎이 진정한 앎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앎만 옳다고 주장하는 지식은 자칫 독선이 된다.

인터넷 읽기에 파노라마식 읽기의 장점을 어떻게 도입할까. 인터넷 항해를 시작할 때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에 따라 검색하게 된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목표는 목적으로 이어진다. 목표를 만드는 것은 동기다. 목적과 동기는 나만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호기심과 흥미는 세계를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하다.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무언가는 동기다. 동기는 어떤 일에 대한 매혹으로 인해 생겨난다. 누군가는 우주 비행사가, 누군가는 작가, 요리사, 정치가가 되고 싶어 한다. 각자는 어떤 매혹에 빠져 있는 것이다.

동기가 있다면 호기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동기가 있다면 목적은 생겨난다. 결국 동기는 살아가면서 나다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읽기가 정보를 받아들여 시야를 넓고 깊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읽기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동기다. 인터넷 시대에 동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유다.

社 說

# 박근혜 중형 사필귀정…사면은 시기상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측근들과 결탁한 국정 농단 등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엄중한 단죄다. 이 같은 범죄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경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의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법적 요건을 갖추자 사면론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데 형이 확정되자마자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게 된 것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헌정사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역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사면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잇단 '호남행' 대선 잠룡들 민심 제대로 읽기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잠룡들의 호남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텃밭 민심을 잡아야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이 줄줄이 광주·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오는 29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하지만 일정을 보면 대권 행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광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상원 열사 생가를 방문할 예정인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고하게 해 대세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향 방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제기로 하락한 지지율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설 전에 두세 차례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면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의 전략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코로나19로 바쁜 가운데서도 기회가 되면 설 전에 광주를 방문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혀 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대선 도전을 선언한 전북 출신 박용진 의원은 오는 20일 1박2일 일정의 광주 방문 계획을 세웠고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설 전에 광주나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룡들의 호남행은 4년 전인 2017년 1월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문재인·박원순·이재명·김부겸 등 여권 잠룡들이 새해 첫 일정으로 호남을 앞다퉈 찾았다. 잠룡들의 호남행은 텃밭 민심의 중요성 때문일 텐데, 이왕이면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無等鼓

## 마린의 기적

1347년 백년전쟁 때의 일이다. 영국의 집중 공격을 받은 프랑스 해안도시 칼레는 1년이 넘는 끈질긴 저항 끝에 결국 항복했다. 영국 왕은 처음 모든 칼레 시민을 죽이려 했다가 취소하고 대신 다른 조건을 내건다. "시민 대표로 여섯 명을 뽑아 와라. 그러면 그들만 처형하고 나머지 시민은 살려 주겠다."

칼레 시민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놀랍게도 부유층과 고위 관료 등 여섯 명이 자신의 목에 밧줄을 맨 채 죽음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모든 칼레 시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 기적 같은 사건인데, 로댕의 조각 작품 '칼레의 시민'은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다르며 후대에 왜곡 및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칼레의 기적'은 2000년 축구 경기장에서 또 일어났다. 칼레를 연고로 한 프랑스 축구 4부 리그 팀 '라싱 유니온 FC 칼레'(부두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동호인 클럽)가 FA컵에서 1부 리그 팀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오른 것이다. 비록 오심으로 인해 우승컵을 들지는 못했지만 프랑스 축구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다.

지난 11일 영국 머지사이드주의 마린 FC 팀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126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조기축구 수준인 8부 리그 팀이 FA컵 3라운드에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팀인 토트넘을 상대하게 된 것이다. 마린은 이 한 경기로 많은 것을 얻었다. 팬들의 사랑과 자부심이다.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열리자 구단은 1장 당 15000원 하는 '가상 티켓'을 판매했다. 관중석은 고작 300여 석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기장 한쪽에 이름만 적어 놓게 되는 티켓이 인구 5만 명 도시에서 무려 3만 697장이나 팔렸다. 마린 구단은 중계권료 등을 포함해 5억여 원을 벌어들여, 향후 20년간의 팀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비록 경기는 토트넘의 5-0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양 팀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박수를 받았다. 축구가 왜 위대한 스포츠인지를 보여 주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 준, 마치 축제 같은 경기였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 AX 222-0195〉 〈F 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